

민노당 이정희 대표

‘야권 통합 길을 묻다’ 연쇄 인터뷰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 민주와 구조달라 ‘연대’가 현실적

# 총선 공천 2:1 정도로 양보해야

(민주당) 〈諸 야당〉

지난 28일 진보신당과의 무려 9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통합진보정당 창당 합의를 이끌어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피곤이 쌓인 모습이었으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

29일 국회의원 회관 집무실에서 한 시간 동안 이뤄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권 대통합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야권 연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민주당이 야권 대통합을 위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면 마음을 열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야권대통합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선 진보진영 통합, 후 야권연대’라고 할 수 있다. 오는 9월 까지 통합진보정당을 창당한 뒤, 10월26일 재보선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등과 함께 야권연대에 나서겠다.

-민주당은 ‘원한다면 눈과 손도 떼어주겠다’며 야권대통합에 적극적인데.

▲대통합은 ‘양보’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 민주당은 정당 구조가 다르다. 진보 정당은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 운영과 공천 등을 결정하는 정당 민주주의가 정착된 반면 민주당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통합에 나서는 것은 진보정당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포기하는 꼴이다. 또한,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통합 원칙을 결정한) 5:31 합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대통합을 위한다면 이러한 점에 대한 진지한 제안을 해야 한다.

-국민참여당과는 통합하면서 민주당과는 안된다는 것인가.

▲마치 민주노동당이 대통합을 거부하는 것 같이 부담스럽다. 민주당과는 안된다는 게 아니다. 대통합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우선, 국민참여당은 당 구조가 우리와 다르지 않다. 또한, 진보정당 통합을 위한 5:31 합의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 정제성 논란과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대통합의 방법으로 정과등록제를 제시했다. 어떤가.

▲합의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 정제성 논란과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대통합의 방법으로 정과등록제를 제시했다. 어떤가.

취지 공감하지만

진보정당 원칙 못버려

민주당 뺀 통합신당

원내교섭단체 자신

”

합의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 정제성 논란과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대통합의 방법으로 정과등록제를 제시했다. 어떤가.

▲하나의 정당에서 각 정파가 다른 당원 구조를 가질 수 없는 것 아니냐. 또한, 정과 등록제를 통해서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 수 없다. 분열되지 않고 오래갈 수 있는 정당이냐는 믿음과 신뢰를 주기 어렵다.

-야권 연대만으로 총선과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나.

▲가능하다고 본다. 이미 지난 재보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충분한 경험의 토대를 쌓았다.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이는 단일화 과정에서 불가피 갈등 등에 따른 것이다. 투명한 과정 아래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는 야권연대가 이뤄진다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야권 연대가 이뤄진다면 지난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처럼 광주·전남지역에서의 민주당의 양보가 전제되는가.

▲앞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다.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기는 시기가 이르다. 당시 야권 연대로 민주당도 많은 플러스 효과를 거뒀다. 단순하게 의석을 양보하는 문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광주·전남 민심은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죽하면 광주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당선을 바라는 목소리까지 있었겠는가. 야권연대는 이러한 민심에 부응하는 좋은 대안이다.

-민주당이 빠진 통합진보정당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통합진보정당이 출범하면 내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 자력으로 원내교섭단체 이상의 의석을 얻을 것으로 본다. 특히, 통합진보정당은 변화를 갈구하는 광주·전남 민심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정지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의 야권연대 성공 여부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특히, 야권연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공동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운영 등을 통해 차기 대선 승리에 따른 공동 정부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진보정당 통합을 추진 중인 조승수 대표를 지난 24일 만났다. 그는 진보정당과 통합 후 민주당과 연대를 주장했다. 또 연대를 위해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

-야권대통합에 대한 조 대표의 입장.

▲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진정으로 야권의 연대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고자 한다면 대통령 재임을 거둬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대통합정당을 만들자고 해서 진보개혁진영에 논란을 만들기도 진보 개혁진영의 강력한 연대를 이루기 위한 상호 신뢰형성의 과정과 방안을 민주당이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과는 대통합이 안 된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호남지역당을 극복하고 다시 정권교체의 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농민·자영업자들로부터 정치적 신뢰를 얻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합 정당을 만들거나 하면 진보 개혁진영내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이 생기고, 그건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리하게 대통합정당을 추진하기보다는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를 강고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야권의 만행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민노당과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이후 28일 양당은 통합에 합의했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지금은 분리돼 있지만 과거 2008년 초까지는 하나의 정당이었다. 진보정치의 독자적 성장과 발전이 필요한 현재의 정치현실에서 서로 과거의 오류를 성찰할 수 있다면 두 당이 다시 함께 노동자·농민·빈민·자영업자에게 진보 정치의 희망을 제시해보자고 의기투합할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통합 대상이 못되는 이유는.

▲결국, 정치적 신뢰의 문제다. 지난 20여년의 민주화 이후 시대에도 노동자·서민은 정치로부터 많은 소외를 당했다.

선통합은 논란만 불러

민주당이 신뢰 줘야

연합정당 만들면

최대계과가 싹쓸이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도 정리해고나 비정규직 문제, 농민의 요구가 전향적으로 해소되지 못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보편적 복지나 노동문제에 대해 좌클릭했다지만 진보정당들과 입장이 완전

히 같지도 않다. 따라서 지금은 시간을 가지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의 연합정당론에 대한 입장.

▲한국의 기성 정당은 대부분 계파와 지역에 따라 좌우돼 왔지 이념·정강·정책에 따라 정파들이 활동해온 경향이 없다. 연합정당론은 결국 하나의 정당 아래 각각의 정파가 공존하는 방식인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이 있는 상황에서 내부 정파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오히려 최대 계파가 독식하는 구조가 관철됨으로써 진보의 싸이 뿌리부터 잘려나갈 가능성이 크다.

-연대로는 후보단일화도 어렵고 선거를 이기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는데.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 진보정당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민주당이 과거의 기득권이거나 과거의 정치체제에 적당한 안주하려 한다면 아마도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할 것이다.

-소통합 후 민주당과 통합이나 연대 시 내년 총선 공천에서 민주당에 요구할 조건은.

▲의회권력 교체와 정권교체를 목표로 호혜와 배려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

-호혜와 배려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도대체 몇 석 정도를 양보해야 하는가.

▲야권연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시기는 아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잡히는 민주당 지지율이 25~28%이고 선진당 등 보수 야당을 제외한 야당의 지지율 합산이 12~15%인 만큼 수도권과 광주·전남에서 민주당과 그 야당 사이에 최소 2:1 비율을 기준으로 지역구 공천을 배분해야 한다고 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 이정희는 누구

통합진보정당 창당 합의를 이끌어 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41)는 1987년 대학에 입학한 '88'정치인이다. 대입 학력고사에서 전국 여자 수석을 했고,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 총여학생회장을 지냈다.

사시 39회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여성복지위원장, 주한미군법외근

절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3번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쌍용차 평택공장 파업 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정치 입문 2년 만인 지난해 민주노동당 대표에 당선된 이 의원은 40대에, 초선이며 여성이라는 점에서 당시 '과격'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에 통합진보정당 창당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승수대표와 이정희 대표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손을 잡고 있다.

## ■ 조승수는 누구

1963년 울산에서 태어났다. 동국대 재학시절 학생운동, 이후 울산과 인천 등에서 노동운동에 투신했다가 지난 1995년 33세의 나이에 민주노동당 소속의 울산군 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조 대표는 1998년 초대 민선 울산 북구청장, 2004년 울산 북구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진보정당 내

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권영길 의원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됐으나 1년여만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그는 지난 2008년 진보신당 창당에 참여했으며 2009년 재선거를 통해 다시 울산 북구 국회의원으로 돌아왔으며 지난해 10월 전당대회에 단독 출마해 당 대표가 됐다.

##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셰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술순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점심특선 별미오리탕 6,000원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 광주1등맛집 • 다담회 한국맛집 •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 광주은행 소호명가

###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 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